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

# 위기를 기회로... 자립도시 조성, 핵심은 '시민'

## 시민 참여 혁신행정 '속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한다면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뜻의 절전지훈(折箭之訓)이라는 말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됐던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 강임준 선장의 군산호는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라는 깃발을 달고 경제위기의 풍랑을 헤쳐 나가기 위한 항해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시민을 위한 혁신행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실현되는 계획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지난 1년의 군산시의 성과를 되돌아봤다.

편집자주

2018년 7월 민선7기 군산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시정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들을 펼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시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만드는 자치도시,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행복한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라는 시정방침을 정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65개 핵심사업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15대 분야, 192개의 중점 사업을 담아 시장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군산시의 지난 1년의 성과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에서 큰 성과 미래 비전 핵심 신재생에너지 추진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 완성해가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등 추진

및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라 할 수 있었다. 지난해부터 시는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 사업 및 군산형 페이백 시행으로 지역의 자립 순환경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

지역주도형 경제 활성화 사업의 전국적인 모델로 정착한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은 최단 기간 내 월 평균 350억원의 판매를 기록하면서 최대 발행을 달성했다.

이는 지역상품권을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대비 2배가 넘는 기록적인 결과로 성공적인 벤치마킹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다음으로 군산시는 미래 비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라는 시민기업을 설립해 시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시민 중심의 태양광, 풍력 등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을 방문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 비전선포식을 통해 새

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군산시는 시민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1단계 새만금 부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육상선도 사업 100MW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로는 군산 시 공공 유휴부지 및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3단계로 해상풍력 등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만들어갈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과 함께 민선7기 군산시는 3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개발해 경제 위기 극복의 과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먼저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교부가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기반을 확충했다.

또 최근에는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지역경제의 한축이라고 했던 한국GM 군산공장이 새로운 미래자동차 분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 자립도시 군산의 미래는 밝다.

여기에 군산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농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전 생애에 걸친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군산시의 복지혜택은 전국적으로 유명해 많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경우 200개가 넘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다음으로 시는 차별화된 지역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군산의 짬뽕은 짬뽕특화거리 사업으로 발전해 기존의 고군산군도와 근대역사문화와 유산들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과 함께 기본인 교통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저감정책,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더불어 쾌적한 안전 도시와 시민 참여 기본조례 제정 및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시민이 만드는 자치도시를 완성하고 있다.

우리의 힘으로 잘사는 군산을 만드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 질 것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 강임준 시장 소회 포부



## 진정한 지역발전은 시민 참여 시민 감동 행정 펼쳐 나갈 것

제가 처음 군산시장으로 취임하며 진정한 지역발전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창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때 가능함을 보았습니다.

저는 군산시장으로 취임하며 공약사항으로 시민이 만드는 지치, 모두가 잘사는 경제, 문화가 흐르는 관광, 골고루 누리는 행복, 더불어 쾌적한 안전 도시를 조성해 살맛나는 군산을 만들 것을 시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지난 1년 간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는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상생도시 구현으로 시민주도권시대를 열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감동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 1년 동안 저는 뼈대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터는 그 뼈대에 살을 채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살을 어떠한 내용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한데 그 일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매 기념식



재난안전대비 현장방문



2018년 인구의 날 기념행사